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3. 31(목) 총 3매	
담당 부서	국토정보정책과	담 당 자	· 과장 손우준, 사무관 이하준, 주무관 강운모 · ☎ (044) 201- 3892, 3461, 3466
보 도 일 시		2016년 4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31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정부, 올해 549개, 3,274억원 규모 공간정보사업 추진

### - 공간정보 통합, 개방, 융·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-

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올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.
  -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, 미래 창조과학부, 행정자치부, 환경부 등 각부처 차관과 공간정보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.
-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(2013 ~ 2017) 방향에 따라 매년 각 부처와 지자체차원에서 직면하는 공간정보분야의 주요 행정과제와 국민생활 현안 해결을 위해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
  - 올해의 시행계획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을 포함하여 총 549건, 규모 3,274억원으로서 전년 2,953억원 대비 321억원 증가하였다. 이는 행정과 민간분야에서 날로 높아가는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.

\* 중앙부처 : 10개 기관, 62개 사업 2,342억원, 지자체 : 17개 광역 시도 487개 사업, 932억원

- 이러한 시행계획사업은 예년의 경우 중앙부처에서는 국토분야의 지형 및 농업, 환경등에 대한 주제도 관련 DB구축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고, 지자체에서는 주민생활 기초 인프라인 상·하수도, 가스 등 시설물 DB와 도로·교통 등 도시관리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며,
- 최근들어 급격한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우리 생활 전반에 스마트폰 등 편리한 인터넷 기반환경이 이루어지면서 ICT와 융복합되는 다양한 공간정보 DB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생활 애플리케이션, 빅데이터 분석 등 위치기반의 정밀한 공간정보 활용에 기반이 되는 고차원 DB 구축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
- 금년도 시행계획의 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, 먼저 국토관리분야에서는 도로 및 7대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운영관리사업,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,
  - 환경분야에서는 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기능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를 창출하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사업,
  - 행정관리 및 주민생활서비스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및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 개선,
  - 농림분야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농지관련 정보DB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지관리 업무에 활용,
  - 해양분야에서는 해양 영토분쟁에 대비 관할해역에 대한 고정밀의 최신 전자해도 DB 구축사업,
  - 기타 홍수처럼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각종 정보에 대해 공간정보를

기반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사업도 전년에 이어 지속한다.

- 그 동안 국토부 등 공간정보 생산관리기관에서는 민간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필수 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행정정보와 민간정보의 융복합 활용기반을 제공하고 있다.
- 공간정보사업은 정부예산 1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3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
- 앞으로도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간정보를 개방하여 융·복합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, 국민서비스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이하준 사무관(☎ 044-201-34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